

# 순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주체로 키운다

### 장천·저전동 등 뉴딜지역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나서 29일부터 노하우 전수 교육...연내 5개소 설립 신고 계획

순천시가 향동, 중앙동의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천동, 저전동 등 도시재생 뉴딜지역의 신규 사회·경제 조직 육성에 나선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된 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새싹학교, 그린리더 양성교육, 마을정원사, 도시재생 살롱, 상인대학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6개(저전 5, 장천 11)의 마을공동체가 활동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심화과정 10회 교육과 컨설팅 5회 등 총 15회 구성되어 있다.

기존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기본교육에서 탈피해 현재 정착하고 있는 사회적 경

제조직 단체들과의 직접 대화시간과 창업 과정 강의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YMCA 2층 교육실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공동체 주민들에게 경제적 동기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가 실효성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계획서 작성·단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해 올해까지 5개소에 대한 설립신고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천동 수제맥주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한 시민은 "현재 수제맥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지역 수제맥주 브랜드화를 통해 장천동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6일까지 각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curban@naver.com)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2단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에서도 활동하는 마을 공동체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일자리 및 경제 소득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지속성 있는 도시재생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 청사 등 한반도기 상시 게양 눈길

### 남북 평화·화해 분위기 확산

순천시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청사 등에 한반도기를 상시 게양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광복 74주년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남북 평화·화해 분위기 확산 및 한반도 평화통일 기틀 마련을 위해 전남 지역 최초로 시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했다.

시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순천시청 광장에서 게양식을 가졌으며 이날부터 시 산하 사업소 등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한반도기를 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유관기관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는 자율적으로 게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공공기관의 한반도기 게양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광주시청이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광주시 서구청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6·15 남북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한반도기를 게양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공존과 평화의 도시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먼저 열어나가고 앞장서기 위해 한반도기를 게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15일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서정진 순천시의회 의장, 낙안3·1운동애국지사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청 광장에서 한반도기 게양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 출렁다리, 봉화산 대신 동천 건립 결정에 '시끌'

### 순천시 9월 착공 추진에 지역 환경단체 전면 백지화 촉구

순천시가 출렁다리를 봉화산 대신 동천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추진된 출렁다리는 30억원(교량 25억원+철축 등산 등 부대공사 5억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만정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에 끌어들이는 구상을 밝혔다.

이 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으면서도 10억원이 넘는 출렁다리 공사자재의 발주와 대금 지급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환경단체는 감사원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까지 맺은 것이 드러났고, 환경단체는 출렁다리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석 순천

시장도 봉화산 출렁다리 등 민원이 많았던 분야들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여의 재검토에 들어간 순천시는 조례호수공원과 국가정원 내 꿈의다리 옆, 풍덕동 그린웨이와 오천동을 연결하는 동천 등 3곳을 검토했고,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봉화산 대신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주해 놓은 공사자재의 재활용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능, 주민편의 등을 고려했다"며 "출렁다리는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오천지구를 한가지 동선으로 잇게 해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

게 하는 강점이 있다"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시는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는 사업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시의 부당한 업무과정이 드러난 만큼 명분없는 사업을 백지화해 행정의 교훈으로 삼고, 기존에 투입된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옥서 순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재원이나 정책과정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어 시는 이 사업을 끝내야 하는 것"이라며 "시가 이야기하는 관광지원회와 원도심 활성화 등은 행정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행사가 23일부터 사흘간 순천시 행동 문화의 거리에서 열린다. 지난해 행사 모습. <순천시 제공>

##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 23~25일 문화의 거리서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순천시는 23일부터 3일간 행동 문화의 거리에서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제7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의 부대행사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된다.

주최측은 여름철 무더위 극복을 위해 순천청소년수련관 앞마당에 반려동물 수영장을 운영,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에는 반려견 수영대회를 열어

특별한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견종이나 크기에 제한없이 선착순 40마리에 한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에 대해 알 수 있는 퀴즈왕 선발대회, 유기동물 홍보부스 운영, 무료 동물건강 상담, 문제견 행동교정 상담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는 8월 22일부터 4일간 순천문화예술회관, 문화의 거리,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된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

## 공영주차장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설치

순천시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을 설치했다.

순천시는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 사민원실 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공영주차장 등 84곳 240



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 전용구역 표식을 설치했다. <사진>

장애인 전용구역 표식은 형광 재질의 싸인볼로 적색을 사용해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시는 공공기관과 집합건물, 공동주택의 신청을 받아 시내 전역으로 표식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된 디자인을 적용해 전용주차 구역 표식을 만들었다"며 "야간이나 먼 거리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 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 10% · 용자 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역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 기준치 5.0 배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발전 4개 단계(신산업·신기술·신시장·신서비스) 추진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총액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긍정 노력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